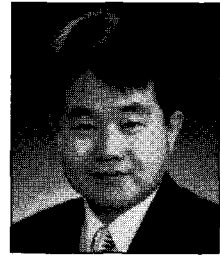


>>>

수송 및 공업포장 발전 기대

'포장맨'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할 터



성도영
삼성전자 포장연구파트 과장

“포장연구에 주력해온 17년 동안 가장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포장기술사라는 자부심으로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포장연구파트에서 전자제품 포장에 대한 기술 및 개발, 품질관련 업무를 해온 성도영 과장은 포장기술사 합격에 대해 “17년간을 준비해온 목표에 결실을 거둔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성 과장은 84년 입사 이후 줄곧 포장 연구에 매달렸으며 85년에는 포장관리사 자격증을 획득, 환경친화적인 완충포장 연구에 박차를 가해왔다.

누구나 ‘포장’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큰 부분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기업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삼성전자에서 포장연구파트가 차지하는 부분은 현재에도 전체 사업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7년 전, 국내 포장산업이 불모지였던 때 포장업무를 처음 시작하게 된 성도영 과장.

입사초기, 그는 포장이 극소수 사람들의 관심거리에 머문다는 사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라는 독특함에 재미를 느끼고 ‘나의 일’이란 애착으로 묵묵히 일해왔으며, 특히 1983년부터

시작된 미국 기술요원의 도입은 그가 포장에 대해 한층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전문인으로 거듭날수 있었다.

성 과장은 현재 국내 포장산업 대부분이 연포장 기술 위주로 치우쳐있기 때문에 수송 및 공업 포장만을 십수년간 연구해온 그에게는 시험준비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놓으면서 품질관리기술사 시험의 경우 통계, 경영학 등 학문적 백그라운드 수립이 이뤄져 있는 것처럼 포장기술사 시험 제도 역시 학문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자리잡히기를 바란다 고 피력했다. 그는 가전제품 관련 포장의 경우 파손이 안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므로 완충 포장에 주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내 포장이 연포장뿐만 아닌 수송 및 공업포장 부분으로의 기술발전이 고루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앞으로도 최적의 완충 효과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성도영 과장은 포장업계 종사자들끼리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랐다. 성도영 과장이 포장기술사로서 전문인이라는 긍지를 갖고 국내 공업포장산업 기술 발전을 위해 주력을 다할 것을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